

노동통계개선시리즈 4

기타 노동통계의 활용방안*

정진호·남재량**

시리즈의 목차

- | | |
|---------------------|--------------------|
| 1. 노동통계 개편방향 | 2. 가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3. 사업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 기타 노동통계 활용방안 |

I. 머리말

- 본고는 노동통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리즈의 네번째 연구임.
 - 그 동안의 세 연구들에서 논의된 것은 통계청과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통계, 즉 조사통계로서 노동통계였음.
 - 시리즈의 마지막인 이번 연구는 통계청이나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사통계는 아니지만 고용 및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들에 대해 살펴봄.
 - 이러한 종류의 통계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한 가지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들임.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본고는 정진호·남재량(2003), 『노동통계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함.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jh@kli.re.kr),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jmam@kli.re.kr).

- 이들 조사들은 모두 패널조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 범주의 통계 조사를 패널조사라고 부르기로 함.
- 다른 한 가지 범주는 정부가 특정 제도(예: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DB)들을 통해 수집되는 통계들임.
 -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이들 DB에 수집되는 자료들을 가공함으로써 노동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음.
 - 고용보험 DB와 HRD-NET 등이 대표적임. 이들을 행정 DB통계로 부를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통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KLIPS와 고용보험 DB 및 HRD-NET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

II. 노동관련 패널조사

◆ 대표적인 조사 : KLIPS, 대우패널, 청년패널

- 고용 및 임금 관련 패널조사로 대표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대우경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 (KHPS)임. 흔히 ‘대우패널’로 불리기도 함.
 -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KLIPS)’임. 한국노동패널은 ‘노동패널’ 또는 ‘KLIPS’로 간략히 언급됨.
 - 셋째, 중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임.
- 이들 조사들은 모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관련 패널조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패널조사란 동일한 표본들을 상이한 시점에서 반복 조사함으로써 표본들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정보를 동시에 얻기 위한 조사임.
 - 특히 노동과 관련된 패널조사가 주로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이 시간에 걸쳐 매우 동적인 모습을 가지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임.
- ‘대우패널’은 이들 셋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된 패널조사이나 1994년부터 1998년까

지만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개인들의 노동시장 상태 변화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역사적인 자료로만 남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대우패널은 외환위기 및 대우그룹의 경영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제5차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이탈률이 매우 높았음.
- 이에 따라 대우패널은 별도의 보정이 없는 한 역사적인 자료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된 상태임.

- ‘청년패널조사’는 중앙고용정보원이 만 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업으로(school-to-work)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career path)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임.
 - 이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현황 파악은 물론 교육·훈련·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와 관련 연구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아직 2001년의 1차 조사 자료만 가용한 상태이므로 패널자료로서 활용할 수는 없음. 2002년 조사 자료가 구축되고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된다면 청년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반면 ‘KLIPS’는 1998년에 시작되어 2002년의 5차조사까지 자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어 패널자료로 활용 여지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표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한국 가구와 개인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실태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KLIPS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패널표본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움직임 등을 추적하여 조사함으로써 개인 및 노동시장의 동태적 모습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둠.
- 표본설계 및 표본의 규모
 - KLIPS 1차조사는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계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1차 대상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사용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조사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조사구이며, 이 가운데에서 군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의 19,025조사구가 표본틀임.

- 궁극적으로 KLIPS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110만여 가구를 모집단으로 이 중에서 0.045%인 5,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가구원의 총수는 13,317명임.

○ KLIPS의 1~5차에 걸친 조사는 아래의 <표 1>에 요약되어 있음.

- 최초 표본 5,000가구 가운데 2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는 4,379가구로서 원표본 유지율이 87.6%이며 총 12,042명의 개인, 즉 가구원이 조사되었음.
- 3차조사에서 원표본유지율은 80.9%이며 4,045가구가 성공적으로 조사되었고 가구원수는 11,206명임.
- 원표본유지율은 4차조사에서 77.3%, 5차조사에서 76.0%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2002년 현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총 3,798가구, 가구원은 총 10,966명임.

<표 1> 1~5차 조사 결과

(단위: 가구, %, 명)

	1차조사(1998)	2차조사(1999)	3차조사(2000)	4차조사(2001)	5차조사(2002)
조사성공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유효표본가구수	5,000	4,379	4,045	3,865	3,798
원표본유지율	-	87.6	80.9	77.3	76.0
분가가구수	-	130	222	383	400
가구원수	13,317	12,042	11,206	11,051	10,966
실사기간	6~10월	7~12월	5~10월	5~10월	5~10월

주: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조사 성공가구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율임. '가구원수'는 15세 이상 가구원으로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임.

○ 패널조사의 성공여부는 조사를 위해 선정된 표본들이 반복되는 조사에서 이탈(sample attrition)되지 않고 계속 표본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크게 의존함.

- <표 2>는 국내외에 있는 유사한 패널조사들의 원표본유지율을 비교한 것임.
- 이 표에서 보듯이 KLIPS는 대우패널조사에서보다 원표본유지율이 더 높고 주요 국가들의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음.
- 따라서 KLIPS는 적어도 표본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패널조사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한국(KLIPS)	한국(대우패널)	미국(PSID)	독일(GSEP)	영국(BHPS)
2차년도	88 (1999년)	82 (1994년)	88 (1969년)	88 (1985년)	88 (1991년)
3차년도	81 (2000년)	72 (1995년)	85 (1970년)	84 (1986년)	81 (1970년)
4차년도	77 (2001년)	64 (1996년)	83 (1971년)	83 (1987년)	80 (1993년)

주: 1차년도의 원표본가구를 기준으로 한 성공비율이며 BHPS는 원표본가구원의 표본유지율임.

- KLIPS의 조사내용은 크게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조사는 주된 조사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 KLIPS의 기본조사에는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직업훈련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에 관한 풍부한 정보들을 담고 있음.
 - 첫 조사인 1998년의 1차조사에는 개인의 배경에 대한 정보와 과거 경험에 대한 내용 및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회고적 조사를 통한 과거 직업력(work history)도 조사하였음.
 - 2차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의 조사 이후 발생한 여러 변화들을 담아내고 있음. 특히 2차년도에는 1차년도와 조사결과를 결합하여 각 개인들의 직업과 일자리의 이동, 고용관계 및 소득의 변화 등 개인의 직업력을 구축하여 1차년도의 회고적 직업력에 추가하였음.
 - 이후 3차, 4차, 5차년도로 조사가 계속되면서 개인들의 직업력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부가조사는 기본조사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한 심층조사임.
 - 1차, 2차, 5차년도 조사에서는 기본조사만 실시하였고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3차년도 부가조사는 ‘청년층’에 대한 것이었음.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에 대한 조사로서 교육전반에 관련된 사항, 재학중 아르바이트 경험, 구직활동 및 첫 일자리 관련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문지가 작성되었음.

- 4차년도 부가조사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것이었음. 즉 ‘고령층의 노동시장 은퇴와 건강’에 대한 조사로서 개인들의 건강상태와 일자리, 장애와 질병, 건강과 보험 및 은퇴와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관련사항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중치와 대표성의 문제

- 현재 KLIPS의 원자료에는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KLIPS는 정부의 여러 지령·일반통계와 달리 집계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회귀분석을 비롯한 각종 분석과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과 축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목적에 소용되는 자료들에서 굳이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가구 및 개인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료의 대표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패널조사에서 발생하는 표본이탈에 따른 대표성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최초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대표성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가중치 부여 노력을 조속히 완료하여 가구 및 개인 가중치를 원자료와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후의 조사에서도 가중치 부여는 계속되어야 함.

○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 사업체조사가 아닌 가구조사에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문 응답자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용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로시간 가운데 정규 및 초과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름.
- 따라서 가구조사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얻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망됨.
-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부가조사 등을 통해 자세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패널의 표본이탈에 따른 편의(bias) 발생 및 보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KLIPS의 표본관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젊은 연령의 부유층이 상대적으

로 많이 이탈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 문제는 가중치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 대체표본을 마련하여 유실된 표본들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문제해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

Ⅲ. 행정DB 통계 : 고용보험 DB와 HRD-NET

◆ 고용보험 DB

○ 고용보험 DB와 노동통계

-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용보험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하게 되었음.¹⁾
- 이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축적되게 되었음.
- 이들 정보들을 사용하여 고용보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생산되게 되었으며 아울러 축적된 자료들의 일부를 직접 추출하거나 이들을 가공함으로써 각종 정책 자료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고용보험 DB상의 자료 생성

- 고용보험 DB상의 자료들은 고용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인 신고를 통해 입력됨으로써 생성됨.
- 행정신고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임금, 사업장 정보 등이 사업주에 의해 작성됨.
- 다만 보험금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간 등 지급관련 정보들은 담당 상담원 등 일선 담당자에 의해 작성됨.

1)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은 중앙고용정보관리원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용보험 DB상의 사업체수 및 피보험자수 추이

-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출범 당시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 따라서 당시 적용사업장수는 <표 3>에서 보듯이 3.9만개에 불과하였으며 피보험자수는 420.4만명에 그쳤음.
- 그러나 1998년 한 해 동안 네차례에 걸쳐 적용범위를 확대한 결과 동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으로 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적용사업장수가 40만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피보험자수도 100만명 가량 증가하였음.
- 2002년 12월에 이르면 적용사업장수는 82.6만개, 피보험자수는 717.1만명으로 증가됨. 그러나 이는 2002년 12월 전체 임금근로자 1,405만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함.

<표 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단위: 만개, 만명)

	1995. 12	1996. 12	1997. 12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사업장수	3.9	4.4	4.7	40.0	60.1	69.3	80.7	82.6
피보험자수	420.4	433.1	428.0	526.8	605.4	674.7	690.9	717.1

○ 고용보험 DB의 구성 및 내용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²⁾
- 따라서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3개 사업 DB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음.

2)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업이 추가 실시됨으로써 4사업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표 4> 고용보험 DB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내 용
적 용	사업장 관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코드(세세분류), 상시근로자수(전년도), 자산총계 등
	피보험자 관리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국적, 채용일, 자격취득일, 자격취득사유, 자격상실일, 상실사유, 학력, 직종, 월임금(취득시), 근로시간, 채용경로, 장애유형, 사업장관리번호 등
보 험 료 징 수		·사업장관리번호, 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료액, 고용안정사업보험료액,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액, 접수일자, 분할납부 여부 등
3사업	고용안정사업	·사업장관리번호, 지급결정일, 사업장명, 종업원수, 지원금액, 추가금액, 지원피보험자수, 지원금별 지원대상기간,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관련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지급결정일, 훈련과정, 사업장명, 훈련기관코드, 훈련기관명, 훈련직종코드, 훈련직종명, 훈련구분(기준훈련, 기준외훈련),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훈련인원, 훈련금액, 훈련기간 등 ·훈련기관 관련정보: 훈련기관코드, 지급기간, 중도탈락인원, 위탁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훈련중인원, 지급결정금액 등 ·근로자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개인관련정보: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업종명, 사업장관리번호, 근무직종(생산직, 사무직, 기타), 학력, 전공, 훈련과정코드,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비용, 훈련수당, 수료현황, 중도탈락사유, 취업여부, 자격취득여부, 훈련직종코드, 훈련직종명 등
	실업급여사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시간, 이직유형, 이직사유, 사업장관리번호, 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연장일수, 수급기간, 수급기간 연장사유 등 ·구직급여일액, 개별연장급여일액, 특별연장급여일액 등

○ 고용보험 DB의 활용

- 별도로 운영되던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들이 연계될 예정임. 이미 2002년에 시험실시를 거친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고용보험 DB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들(예: 개인들의 임금자료)이 극복될 수 있게 되었음.
- 고용보험 DB상의 자료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되므로 시의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고용보험 DB는 장차 각종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높은 시의성은 사업체의 노동수요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
- 고용보험 DB상의 원자료들을 결합, 가공, 패널화하는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변화, 노동이동, 개인들의 직업력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

○ 고용보험 DB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용 및 일부 임시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른 문제가 있음. 2002년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DB를 사용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나 정착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자료의 입력 오류, 작성 누락, 미갱신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DB상의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연계를 통해 얻어지는 막대한 양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HRD-NET)

○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은 노동부, 훈련기관, 훈련생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직업훈련정보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망임.

- HRD-NET의 목표는 ①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종합직업훈련 정보망 기능을 수행하고 ② 직업훈련 관련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며 ③ 직업능력개발 관련 종합 DB 구축을 통한 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는 것임.
- 기존의 직업훈련정보망인 JT-NET을 HRD-NET으로 명칭 변경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위주의 기존 시스템을 재직자 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01년 5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HRD-NET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

- 훈련 기관/과정/교사/매체 등에 관한 훈련정보 제공
- 국가자격 및 민간공인자격 등의 자격정보와 자격검정 일정에 대한 정보 및 직업정보, 직업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
- 훈련 기관/과정 평가결과와 훈련기관 자기진단 프로그램 등 평가정보 제공
- 이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과 제도 소개 및 관련통계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고용보험 DB와 HRD-NET의 연계

- HRD-NET은 고용보험 DB와 연결되도록 구축되어 있어서 훈련에 대한 정보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간이 흘러 자료가 계속 축적된다면 패널화를 통해 직업훈련 경험과 일자리 경

협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로부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분석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임.
- HRD-NET상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훈련기관들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생성됨.
 - 따라서 훈련기관들의 성실한 입력이 HRD-NET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게 됨.
 - 2003년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2002년의 경우 입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50% 정도만 입력되었음.
 - 입력을 하지 않은 훈련기관은 다음 연도 훈련기관 인·지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영세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입력을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방안을 찾아 HRD-NET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IV. 맺음말

- 조사되고 구축된 자료들의 생명력은 그 활용도에 달려 있음.
 - 앞에서 살펴본 고용보험 DB와 HRD-NET은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자료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패널조사와 행정DB 통계뿐 아니라 기존의 여러 조사통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정부는 생산되는 자료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임.